

오늘의 기사판

오늘 (5일)
▲무등산수박 출하 기원제 =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직판장. 출하 기원제 및 시식회, 무등산 수박 요리 전시회.
▲광산업전시회 개막식 =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6 진도군 건강 및 문화교실 = 오전 10시 진도군 서울웨딩홀 지하공연장.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개강 =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월산동 금곡교육문화회관.
(6일)
▲전남도 부시장·부군수회의 = 오전 10시30분 전남도청 상황실.
▲제 1회 광주시장기 어른신 건강체전 = 오전 10시 영주실내체육관.

무등산수박 출하 기원제

▲광산업 투자 환경설명회 = 오후 1시4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항공우주산업 정책연구회 = 오후 3시 광주 테크노파크 3층 중회의실. 조선대 이상기 교수가 '광주 항공우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
▲제 1회 순천 북지 박람회 = 오전 10시 순천시 장천동 옛 시민회관 주차장.
▲영호남 생활체육친선축구대회 참가선수단 환영만찬 = 오후 7시 광주시 프린스호텔.
▲유기 구라모토 광주 공연 = 5일(화)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화요예술무대 '가을밤의 브라스 향연' = 5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임석인과 좋은 친구들 공연 = 5일(화) 오후 6시 광주지하철 상무역.

▲영화 작업의 정석 = 5일(화)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
▲김미숙의 '전통춤의 향기, 그리고 '하얀 눈물' = 6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크라온 해태 국악 한마당 = 6일(수)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강일호 개인전 = 6일까지 자미갤러리.
▲오픈 스튜디오 = 11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타향속에 삶과예술 = 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몽당연필전 = 11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가족음악 단체전 = 14일까지 일곡 갤러리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풀어아 할 매듭, 을사늑약 특별기획전' = 9일까지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까지 과정, 고종 황제가 서방 각 나라에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낸 친서, 이완용 등 을사오적 관련 자료 등 60여점 전시.
▲백담 무비천 해강스님 원국학 미술 특별전 = 20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윤애근 교수 개인전 = 5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자연에서 얻은 곤충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 25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남궁억과 장지연 등, '황성신문' 창간(1898)
▲일본과 러시아, 포츠머스조약 체결(1905)
▲국방경비대 개편으로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발족(1948)
▲태권도, 2000년 올림픽 정식경기 채택(1994)
▲테레사 수녀 사망(1997)
▲방송-통신위성 '무궁화 3호'기아나 쿠루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1999)

전시

▲유기 구라모토 광주 공연 = 5일(화)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화요예술무대 '가을밤의 브라스 향연' = 5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임석인과 좋은 친구들 공연 = 5일(화) 오후 6시 광주지하철 상무역.

오늘의 유머

황당한 비행기 운전 교본

한 남자가 비행기 운전 교본을 들고 항공기를 몰기 시작했다.
'먼저 엔진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조종간을 앞으로 당기고-' 책에 써있는대로 하나 하나 과정을 따라해 드디어 멋지게 이륙에 성공했다. 신기했다. 하늘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기를 몇 시간.
착륙해야 할 순간이 되자 다시 책을 펴 들고 기절했다.
'착륙편은 다음호에 계속'

금붕어의 자살?

외로워보여서, 냉장고에 있는 굴비를 꺼내 어항에 넣었다.
10분뒤.
금붕어는 굴비가 싫은지 자살했다.

오빠와 아저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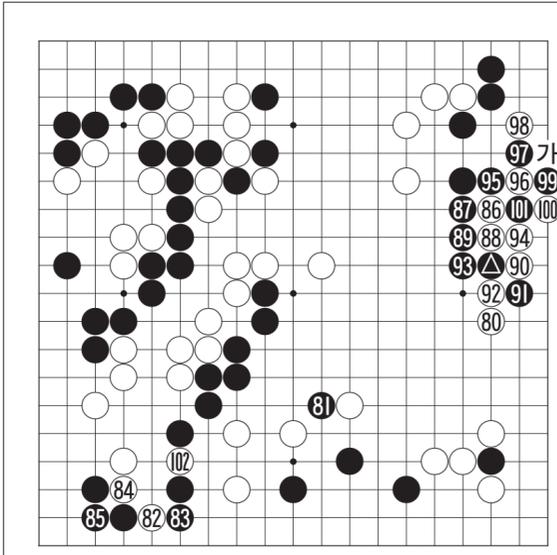
핸드폰 허리에 차면 아저씨.
주머니에 넣으면 오빠!
없으면 할아버지
노래방에서 책을 앞에서 부터 찾아면 아저씨.
뒤에서 부터 찾으면 오빠!
찾아 달라 하면 할아버지
답다고 윗단추 풀면 오빠!
바지 걸으면 아저씨.
내복 벗으면 할아버지
브루스 출 때 허리 감으면 오빠
왼손 올리면 아저씨.
발 밟으면 할아버지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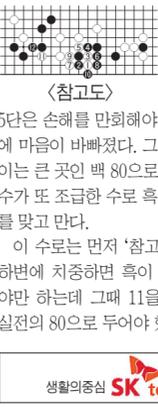
- 1.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걸 남은 생각 못할 줄 안다.
2. 방송사들의 착각
-흐리 나오면 시청률 올라가는 줄 안다.
3. 인터넷 광고회사의 착각
-광고창을 계속 뜨게 만들면 언젠가는 접속속해 주는 줄 안다.
4. 연애 안 해본 남자의 착각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 줄 수 있을 줄 안다.
5. 남자의 착각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있는 줄 안다.
6. 남자들의 착각 2
-술직히 나중도면 괜찮은 남자인줄 안다.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다 핑기는 건줄 안다.



▲오즘 고등학생들-책이나 들어가겠나? <유니텔톡>



제15회 광일제 광주·전남 지역바둑대회



결정타 흑 81 제6보(80~102)
白 허우석 5단 <광주광역시청A>
黑 이강민 5단 <PCA생명>
전보에서 바뀌쳐기로 손해를 본 허우석은 81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수가 또 조금 수로 흑 81의 결정타를 맞고 만다.
이 수로는 먼저 '참고도'의 백 1로 하면에 치중하면 흑이 10까지 받아야만 하는데 그때 11을 선수해두고 실전의 80으로 두어야 했다. 이 교환을 생각하는 바에 이 5단이 기만하게 81로 먼저 차단해 오자 이제는 '참고도'의 수단이 사라져 버렸다.
우변에서 아무리 이득을 보더라도 이번이 이대로 흑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바둑도 끝장이다. 허 5단은 후회를 거듭하며 84까지 선수하고 나서 86으로 쳐들어가 보복 공격에 나선다.
흑 97까지는 이런 정도며 99는 기세의 반발이나 '가'에 내려서면 아무 일도 없었다. 100으로 패가 되어 어지러워 졌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매일유업, 한국 바둑리그 첫승
인천 매일유업이 지난 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06한국바둑리그 지방투어 경기에서 대전 신성건설을 3-1로 꺾고 뒤늦게 첫 승을 신고했다.
8라운드까지 7무패를 기록했던 매일유업은 9경기 만에 첫승을 신고, 리그 종합순위 7위에서 공동 4위로 도약했다.
매일유업은 이창호 9단이 김승준 9단을 꺾고 기선을 잡은 데 이어 홍성지 5단과 류재형 7단이 연승을 거둬 승부를 일찌감치 마무리 지었다.
오는 12일 사이판 월드컵조트에서 열리는 해외투어 경기에서는 1위 팀 경기 한계미과 3위 경북 월드컵드미아가 맞대결을 펼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28.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이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전임 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난달 7일 공식 사퇴한 지 25일 만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6번째 교육부 총리가 될 충북 청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누구 일까요?

- ① 김신일 ② 김병준 ③ 이돈희 ④ 이해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Includes signs like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굿모닝 잉글리쉬 <726> 오하이오 니혼고 <726> 니하오 쫑구워 <444> 한자 이야기 <344>

Is this seat taken? 이 좌석 사람 있어요?
A: Is this seat taken?
B: No, you can sit here.
A: Thanks. Oh., this bag is heavy. How far are you two going?
B: We're going to Daejeon.
A: 이 좌석 사람 있어요?
B: 아니요, 앉으세요.
A: 감사합니다. 휴, 이 가방이 무거워서, 두 분은 어디까지 가시는 거죠?
B: 저희는 대전까지 갑니다.
Is this seat taken? = Is this seat occupied?
[反 : Is this seat vacant? = Is this seat unoccupied?]
How far~? : 얼마나 ~입니까?
[응용] How wide is this river? (이 강은 얼마나 넓습니까?)
How skillful is he? (그 분은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講讀者が多(おお)い新聞は何ですか?
구독자가 많은 신문은 무엇입니까?
A: 日本で一番(いちばん)、講讀者(こうどくしゃ)が多(おお)い新聞は何ですか?
B:そうですね。読賣新聞(よみうりしんぶん)でしょうね。なんとって一千万(いち千万)を超(こ)えますからね。
A:すごいですね。日本の人口(じんこう)が一億三千三百万(いち億三千三百万)ぐらいですから。
B:単純計算(たんじゅんけいさん)で、10人に1人が読んでいることになりましたね。
A: 일본에서 제일 구독자가 많은 신문은 무엇입니까?
B: 글썬요, 요미우리신문이겠죠. 아무튼 천만부를 넘었니까요
A: 대단하네요. 일본인구가 일억천삼백만인 정도니깐~
B: 단순계산으로 10명에 1명이 읽게 되겠네요.
講讀者(こうどく): 구독
なんとって: 아무튼
~~~ぐらい: ~정도
単純計算(たんじゅんけいさん): 단순계산

我薬換銭 환전하려고 합니다
A: 我薬換銭(わがやくかへせん)
B: 何(なに)の(なん)お(お)金(かね)ですか?
C: 我(わ)の(の)お(お)金(かね)は(は)何(なに)ですか?
A: 700(ななひゃく)圓(えん)です。
B: 何(なに)の(なん)お(お)金(かね)ですか?
C: 我(わ)の(の)お(お)金(かね)は(は)何(なに)ですか?
A: 我(わ)の(の)お(お)金(かね)は(は)何(なに)ですか?
B: 何(なに)の(なん)お(お)金(かね)ですか?
C: 我(わ)の(の)お(お)金(かね)は(は)何(なに)ですか?

登龍門(등용문)
오물 등, 용 룡, 문 문
등(登)은 원래 발(口) : 위로 올라가는 두발) + 두(豆: 제기) + 들어 올리고 있는 두 손으로 이루어져, 위에 오르다, 위로 올라다는 뜻을 나타낸다. 용(龍)은 원래 머리에 관(冠)을 쓰고 몸통을 휘어 구부리고 있는 큰 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등용문(登龍門)의 용문(龍門)은 황하(黃河)의 상류에 있는 협곡(峽谷)의 지명이다. 황하는 중국대륙의 북부를 흐르는 큰 강으로 상류는 협곡(龍門)이다. 그 중에서 협곡관(咸陽關)이 협곡으로 유명하고, 거기서 다시 200킬로미터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용문'이 나온다. 이 곳 용문은 산골짜기의 물이 모여 흘러 떨어지는 곳으로 험난하기 비할 데 없어 배는 물론이고 큰 바다에서 올라온 큰 물고기라도 뛰어오르기가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용문의 물 속에는 급류를 뛰어오르려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모여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급류를 타고 넘은 물고기는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르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이것이 뜻이 변해 출세(出世) 혹은 성공(成功)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이런 관문을 등용문이라고 하게 되었다. 등용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용문을 뛰어오르기 위하여 온 힘을 들여 노력하면 물고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